

## 제 16 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번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초대 교회가 선포한 메시지와 오순절을 통한 제자들의 선교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 1.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전 15장은 부활사건과 부활신앙을 구별하고, 부활사건 없이는 믿음은 허망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7) 바울의 성령이해를 가지고 박사논문을 쓰면서 가장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부활신앙임을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복음서의 증거가 확실히 뒷받침함도 함께 발견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역사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증거를 통해서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음을 사 복음서가 공통되게 증거합니다 (막 16:9와 병행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눅 24:13-35; 마태 28:10) 부활을 증거하시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절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 28:18-20). 사복음서에서 공통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생전에는 숨기시나,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나타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막 9:9; 마태 16:20; 눅 9:36; 비교: 막 16:15-18; 눅 24:46-49; 요 20:30). 둘째, 베드로 (눅 24:11)와 다른 제자가 (요 20:2) 빈 무덤을 목도한 것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음을 복음서는 공통되게 기록합니다 (막 16:5-7; 마 28:2; 눅 24:4-7, 22-23). 셋째, 부활의 첫 목격자들로 여성들이 있습니다 (막 16:20; 눅 24:1; 10; 22-23; 마 28:1; 요 20:1). 유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결코 여성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5:1-11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였음을 말하여,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내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고 (행 1:3-5),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지요. 바로 그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삼천명이나 교회에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 2:22-24; 31-33; 36; 3:14-15; 4:10; 33; 5:22; 29; 9:22; 10:39-41). 회심 후 바울의 설교 (행 13:27-39; 17:2-3; 18; 30-32; 18:5; 28; 20:21; 22:6; 24:15; 21; 25:19; 26:8; 23; 28:31)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중심 내용이 되어 나타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와 바울의 부활신앙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빌리 맑센은 불트만학파를 대표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 안으로의 부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성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요.<sup>1)</sup> 그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는 서로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요. 맑센에 의하면 고전 15:8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의 경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본 경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전 15장을 분석하면, 그와 같은 맑센의 이해가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는 바울은 그의 다메섹 경험을 고전 15장에서 분명히 부활 경험의 선상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초대교회의 부활체험의 증거와 일치하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옵테" ("보이셨다")라는 동사는 "계시"적 조명을 가르키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임을 신약 용례는 밝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sup>2)</sup>.

맑센에게는 죽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부활신앙은 결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인간의 철학적 실존적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 곧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영광의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9-17). 그리고 이와 같은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바울은 현재 성도들이 성도들의 본분, 곧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성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명령합니다. 바울의 이같은 부활신앙의 근거에는 다메섹도상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이 핵심에 있고, 고전 15:3-5의 가장 이른 복음 기록은 부활사건이 초대교회 신앙고백 중심에 있었음을 밝히 보입니다.

## 2. 오순절 역사의 의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보편적 사실은 지상에서 메시아 사역의 완성과 더불어 성령의 시대가 도래 했다는 제자들의 인식입니다. 요엘 2:28 예언은 이미 성령의 오실 날을 예언했고, 이 예언은 민수기 11:29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령시대에 대한 기대가 유대인 공동체들, 특히 콤란공동체들에 부풀어 있어서, 그들은 "감사의 찬송"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진리의 영, 권고의 영, 지식의 영으로 부르며, 공동체 영역 내 성령 사역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함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세례 요한은 설교 중 예언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곱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막 1:7-8과 병행 절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오실 자되심을 보이면서, 그 오실 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성취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의 성취로 그 사역을 묘사하십니다 (눅 4:18-19).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 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였기에, 그 능력을 바알 세불의 도움에 연유한 것으로 주장한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님의 사역의 다른 두 면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한의 말을 빌리면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셨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는 그가 고통과 죽음을 겪고서 시편 110:1의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의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은 유월절 후 7주 만인 오순절 명절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첫 번 기독교 오순절 사건들에서, 과거에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나라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그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 안에 부어 주심은 새 언약의 표적이었는데, 이는 예레미야 31:31-34; 에스겔 11:19이하; 36:26이하와 비교할 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고려해보면, 성령을 주신 사건은 그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주와 메시아, 곧 효과적으로 성령세례를 베푸시는 자로 보좌에 앉으신바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담대히 외칩니다. 곧 이스라엘 온 집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죄 용서함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인 교회를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므로 교회 내에서 행해진 범죄는 성령을 거슬리는 범죄이며, 사도들의 선교활동도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며,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식되었습니다.

### 3-5. 초대교회 모습

열두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들을 지상 사역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사도직에 결원이 났을 때, 예수의 추종자로서 세례 요한 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다닌 자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중에서 두 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서 제비뽑아 맛디아로 대체하였습니다 (행 1:21-26). 이와 비교하여, 경건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하였을 때는 사도를 다시 뽑지 않았는데 이는 사도직의 계승이 없었음을 보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네 형제들 중 맏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세 기둥 중 하나로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물건을 공동 소유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습관의 계속이었는데, 오순절 이후, 사도의 은혜를 받은 개종자들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헌납된 재산을 공동재산에 집어넣어, 공동재산에서 매일 가난한 자에게 식량이 공급되었습니다.

### 6-8. 제자들의 선교와 초대 교회 교인들의 명칭 및 구성원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사 이스라엘이 대망해온 메시아로 판명된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로마제국과 유대민족으로부터 다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신적 은총의 극치인데,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신 21:22-23)를 메시아로 전한 초대교회 주장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담대히 증거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신명기 18:15-19에서 장차 오시리라고 예언된 선지자요, 이사야서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고난의 종이심을 증거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선지자, 그리고 종으로 말하는 이 삼중의 동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앓은뱅이를 고친 사건에 이어 나오는 베드로의 성전의 설교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22-23).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명백한 능력은 신명기 18:18-19에 약속된 선지자가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방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의 헬라 거주민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나사렛파" (Nazareans)라고 불렀는데, "나사렛"이란 지명인 나사렛에서 직접 파생한 단어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데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나사렛파"로 불렀던 것은 예수님의 나사렛 배경과 "준수자"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브루스는 해석합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 오순절 후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 왔던 경건한 공동체에 속하였음이 분명하며 많은 수의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상당수의 제사장들까지 초대교회에 연합 했습니다 (행 6:7).

새로운 공동체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낸 무리들 가운데는 사두개파와 대체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크게 강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싫어했고, 그리고, 제자들의 설교에 많은 군중이 동의함으로 유대 기성 질서에 위협을 준다고 보고 공중질서를 빌미로 이 운동의 급격한 발전을 저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중심 멤버들이었던 유대교인들은 경건하고, 성전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람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 제 17 장 스테반, 빌립, 헬라파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와 함께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이점과 빌립과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등을 공부할 것입니다.

### 1. 헬라파와 히브리파

예루살렘의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는 초창기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구분은 언어와 문화적인 것이나 동시에 신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통상적으로 아람말을 사용했고, 그들의 모국은 팔레스틴, 혹은 아람말을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헬라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보다 엄격한 팔레스틴 사람들 보기에 지나치게 헬라 습관들로 젖어 있어, 그들 대부분은 헬라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헬라파 파부 구제가 소홀히 됨을 막고자 누가에 의하면, 매일 공제 책임을 맡을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그들은 헬라파 지도자들입니다. 스테반의 짧은 공적 경력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예식에 대한 과격한 공격으로 유명했고 전도자로서의 빌립의 경력은 복음을 유대주의의 울타리 밖으로 전달한 것이었죠.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콤란공동체와 초대교회 헬라파 선교지향적인 자유주의간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쿨만의 주장을 부르는 용납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바르게 지적합니다.

스테반은 자유민 회당이라고 불리운 예루살렘의 한 헬라파 회당에 속했는데, 그 회당회원으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등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죠. 스테반은 예수의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스테반과 바울의 공통된 견해였고, 히브리파 사람들과 사이에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거짓증인들에 의하여 고소받은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테반과 같이 급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심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전의식이 끝났다고 믿었어요. 스테반은 열조의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으심을 상기시켰죠. 그는 사도 시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새 성전을 구성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재판받을 당시, 사도행전 7:56에서 -"인자"가 복음서 말고 신약에 나오는 유일한 구절로서- 스테반이 본 인자는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스테반은 이 말 후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처형되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투를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함으로 바울이 처음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 2-3. 빌립의 선교와 베드로의 이방선교

스테반의 죽음은 박해운동의 신호탄이었고, 사울(바울)은 박해 운동의 주동자였습니다. 무서운 핍박의 결과 헬라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일색으로 보수적이 되었으나, 헬라파는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도하여 비유대권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 중 빌립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갔습니다 (행 8:5).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간단하게나마 사역을 행했다고 하는 4복음서 증거로 보아, 빌립은 그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였고,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소식을 듣고, 지도적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빌립의 수고를 크게 인정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무리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방문으로 박수 시몬과 균열이 일어났고, 시몬은 후에 사도들의 선교, 특히 베드로의 원한 깊은 적대자로 나오며 로마에는 시몬 당이라는 영지주의 이단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빌립은 가사 근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스 내시에게 이사야의 고난의 노래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제자들의 공동체 순방에 나섰다가, 고벨료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을 방문하여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믿었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으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저 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행 9:32-10:48). 그 후 대규모 이방선교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발생했는데, 전도자들은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행 11:20). 즉, 스테반 죽음 후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헬라파 공동체 회원들로서 수리아 베니게를 통과하여 안디옥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안디옥 같은 헬라 세계 중심도시에는 구원을 약속하는 많은 신비종교집단이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것들과 달리 힘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명으로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이방교회가 왕성하게 자라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창설멤버요, 레위인이며, 구브로 사람으로 헬라파유대인으로 추정되는 바나바를 보냈는데 (행 4:36), 그의 지도하에 왕성한 교회가 안디옥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 
- 1) Willi Marxsen, Willi Marxsen, *The Resurrection of Jesus of Nazareth*, Margaret Koh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68), esp. Chapters III-IV. 막센이 주장하는 바는 베드로가 처음 주관적 체험, 혹은 확신으로 예수가 살아 있다고 깨달았고,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제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는가 하는 역사적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 2)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엠마오, 서울: 1994). pp. 93-96.